



공동체 소식



예수 부활 대축일

하느님, 오늘 외아드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영원한 생명의 문을 열어 주셨으니,
저희가 주님의 부활 대축제를 지내며,
성령의 힘으로 새로워지고 생명의 빛을 받아 부활하게 하소서.



4월 기도지향

- 캔사스 한인 공동체와 함께 한 사제들을 위해 (박호철 베네딕도, 이승용 마태오, 신성국 노엘, 박진성 프란치스코 신부님)

☞ 교황님 기도 지향 :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현존으로 위안을 받고 모든 교회가 그들과 연대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부활 맞이 인사

주님께서 참으로 부활하셨다. 알렐루야!
만물이 생동하는 아름다운 봄에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의 아픔과 상처, 세상의 어둠과 죽음의 문화는 여전히 우리 어깨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어찌면 부활은 내 안에서 시작되는 화해와 용서, 비움 바로 그곳입니다. 부활을 노래합니다. 부활을 살아갑니다. 아멘.

하느님의 자비 주일

교회는 부활 제2주일을 ‘하느님의 자비 주일’로 정하여 하느님의 크신 자비를 기리는 날로 지냅니다. 외아드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죽음, 부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느님의 크신 자비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저는 당신께 의탁합니다.”

청장년 남성 신자 피정

- 일시 : 5/15(금) ~16(토) 1박2일
- 장소 : Prairie Star Ranch Retreat Center(Williamsburg)
- ☞ 4/26(일)까지 참가비 30불과 함께 선교분과장(정수한 베드로)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부활 대축일 꽃 봉헌자

박옥희, 양정희, 김인자, 유경애, 이진경, 김말자, 최은미, 조경희, 정지현, 김경희, 최선윤, 박혜정

기타

- “차쿠의 아침”에 대한 감상문, 다음 주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 빠스카 성삼일 전례에 봉사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신 형제자매님들께 감사드립니다.
- 마니또 선물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 캔사스 대교구에서 나누어 드린 Rice Bowl을 회수합니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총액을 체크로 봉헌해 주시면 송금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 4/12(일) 중심미사 후, 다큐멘터리 ‘님아, 그 강을 건너지 마오.’를 상영할 예정입니다.

전례 성가

시 작	예 들	성 체	마 침
130	129	135/175	137

주일미사 복사

	시종 복사	항 복사
금주	어린이 전체 복사	
차주	안광민 야고보	고평원 프란치스코
	문호진 안토니오	이원준 요한

전례 봉사자 및 독서자

	해설자	제1독서
		제2독서
금주	박혜정 카타리나	홍순익 마르띠노 최은미 아녜스
차주	김주연 세실리아	차호섭 요셉
		최선윤 마리아

애찬 봉사자

금주	다 함께
차주	김경희, 김인자, 안혜진

헌금 봉사자

금주	김태중 예레미야, 문석찬 요셉
차주	정수한 베드로, 김대성 요한

우리들의 정성

하느님께 드리는 헌금과 교무금에 정성을 다해주시어 감사합니다!!!

	영성체	헌금	교무금
3/29	75명	295불	600불
김호원, 정지현(총 2세대)			

예수 부활 대축일

“보이는 것은 잠시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2코린 4,18-

2015년 4월 5일

미사시간
주 일: 11:00 AM
화요일: 7:30 PM
목요일: 10:00 AM

고해성사
매 미사 30분전

예비자교리
주일 10:00 AM

캔사스 한인 천주교회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Kansas
9130 Pflumm Rd. Lenexa, KS 66215
(913) 563-7896 www.kckcatholic.org
주보 편집 : 박동희 안나 660.853.9984 flyanna@gmail.com

주임신부 **주영길** 토마스
M: 913.633.1273
jooyk88@gmail.com

회 장 **홍순익** 마르띠노
M: 913.486.4204

부 회 장 **김태중** 예레미야
M: 913.963.7521

재 무 **차호섭** 요셉
M: 614.598.7908
hscha72@gmail.com

오늘의 전례



알렐루야! 주님께서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오늘은 예수 부활 대축일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그분께서 죽음의 권세에 묶여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 부활의 빛을 우리 안에 가득 받아들일 수 있도록, 깊은 믿음으로 사도들의 증언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림 묵상

부활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을 딛고 시공을 초월한 눈부신 생명의 세계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평화’라는 선물을 잘 간직하며, 희망을 안고, 새로운 생활을 기쁘게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고, 또 살아서 믿는 모든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요한 11,25-26)

정미연 소화데레사

제 1 독서 : 사도행전 10,34ㄱ.37ㄴ-43
< 예수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신 뒤에 우리는 그분과 함께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였습니다. >



이 날 이 주 님 께 서 마 련 하 신 날 이 날 을 기 뻘 하 자 춤 들 을 추 자.

-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 좋으신 분을 영원도 하시어라. 그 사랑 이-여. 이스라엘 가운아 일컬으라. 영원하신 그 사랑. ◎
-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일으키셨도다. 주님의 오른손이 큰 일을 하셨도다. 나는 죽지 않으리라. 살아보리라. 주님의 장하신 일을 이야기하고자. ◎
- 집짓는 자들 내버렸던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이다. 주님께서 이루신 일이옵기에 저희 눈에 놀랍게만 보이나이다. ◎

제 2 독서 : 콜로새서 3,1-4<또는 1코린 5,6ㄴ-8>
<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저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십시오. >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그리스도 우리의 파스카 양으로 희생되셨으니, 주님 안에서 축제를 지내세. ◎

복 음 : 요한 20,1-9 < 예수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셔야 한다. >



“그분께서는 되살아나셨다” (마르 16,6)



1.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부활 대축일을 맞이하여, 하느님의 은총과 평화가 신자 여러분의 가정과 지역사회에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복음인 마르코 복음을 보면, 주간 첫날 이른 아침, 세 여인은 돌아가신 예수님께 향료를 발라 드리려고 무덤에 갔습니다. 거기에서 그들은 예수님을 뵈지 못하고 흰 겉옷을 입은 젊은이의 말을 듣습니다. “놀라지 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자렛 사람 예수님을 찾고 있지만, 그 분께서는 되살아나셨다. 그래서 여기에 계시지 않는다”(마르 16,6).

2. “예수님의 부활은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 신앙 진리의 정수”(가톨릭교회교리서 638항)입니다. 사도 바오로는 그리스도인의 신앙 안에서 예수님의 부활이 차지하는 핵심적인 진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되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복음 선포도 헛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됩니다”(1코린 15,14). 특히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진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과 함께 이해해야 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교회가 파스카 신비의 핵심부분으로 가르쳐 온 신앙진리이기 때문입니다.

3. 예수님께서서는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겪으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느님의 사랑이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 죄를 위한 속죄제물이 되게 하였고, 예수님께서서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 내어 놓으신 그리스도께서 이제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십자가의 삶을 당부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마태 16,24).

이러한 당부는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말씀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2013년 3월 14일,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서는 교황으로 선출되신 후, 추기경들과 함께 시스티나 성당에서 첫 공식 미사를 거행했습니다. 이 미사에서 교황님께서서는 “주님 앞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갈 용기를 가지고,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주님의 피 위에 교회를 세우며,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유일한 영광으로 고백하고 증언하자”고 당부하셨습니다. 우리 신앙인은 십자가를 두려워하거나 피하지 말아야 합니다.

4. 주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는 그 분의 십자가를 함께 지고 걸음으로써 부활을 체험하고 각자의 삶 안에서 기쁨과 생명의 열매를 맺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사순 시기를 시작하며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서는 우리가 잘 지내고 편안할 때 곧잘 다른 사람들을 잊어버리고, 그들의 문제와 고통, 그들이 당하는 불의에 더 이상 관심을 두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맞서 교황님께서서는 본당과 공동체는 “무관심의 바다 한가운데에 있는 자비의 섬”이 되어야 한다고 역설하셨습니다.

우리 사회 역시 가난하고 소외되고 약한 이들을 돌보고 배려하기 보다는 자신이 속해 있는 집단이나 자신의 이익만을 도모하는 이기주의가 보편화 되어 있고, ‘나’이외의 것은 관심조차 없는 개인주의가 점점 팽배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이기주의와 개인주의가 물질만능주의와 결합되어 ‘인간과 생명’을 경시하고 ‘개인’의 권리와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이, 우리 사회의 기초이며 토대인 가정공동체와 부부사랑은 위기 앞에 놓여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의 이면에 ‘무관심’이 뿌리 깊이 자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무관심에 맞서 그리스도인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의 빛으로 무관심의 어둠을 몰아내고, 그릇된 풍조에 맞서 올바른 가치를 존중하고 수호하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교구 공동체 구성원들은 말씀과 성체 중심의 삶을 실천함으로써 하느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에게로 향하게 해야 합니다. 사랑으로 행동하는 믿음(갈라 5,6 참조)이 바로 부활의 기쁜 소식의 선포이기 때문입니다.

5. 예수님께서서는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죽음으로 죽음을 쳐부수고 부활하셨으며, 풍성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통하여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로마 6,4).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부활을 통해 사랑의 길, 기쁨의 길,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부활을 경축하며 부활의 기쁨과 희망이 신자 여러분의 가정과 지역사회에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 청주교구 장봉훈 가브리엘 주교 -



제 3 편 자기 성화

제 3 장 저 위에 있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으니, 저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느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위에 있는 것을 생각하고 땅에 있는 것은 생각하지 마십시오(골로 3,1-2).

【주석】

다시 살아났으니 : “다시 일으켜졌으니”라고 직역할 수 있다(주석 성경, 신약, 771).

저 위에 있는 것 : 땅에 있는 것과 반대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된 새 생명을 가리킨다. 이 구절은 지상의 실체들을 경시하는 것은 아니다(상동).

【설명】

▶ 생각이 왜 중요한가? 작은 키가 배의 방향을 잡게 하듯이,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삶이 바뀐다.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생각은 적극적인 삶의 시작이다.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생각은 부정적인 삶의 시작이다. 생각을 바르게 함은 행복의 길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으니, 천상의 것을 추구해야 한다.

▶ 죄인은 제 길을, 불의한 사람은 제 생각을 버리고 주님께 돌아오너라. 그분께서 그를 가없이 여기 시리라. 우리 하느님께 돌아오너라. 그분께서는 너그러이 용서하신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같지 않고 너희 길은 내 길과 같지 않다. 주님의 말씀이다. 하늘이 땅 위에 드높이 있듯이 내 길은 너희 길 위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 위에 드높이 있다(이사 55,7-9).

▶ 하느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총에 힘입어 여러분 모두에게 말합니다. 자신에 관하여 마땅히 생각해야 하는 것 이상으로 분수에 넘치는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저마다 하느님께서 나누어 주신 믿음의 정도에 따라 건전하게 생각하십시오(로마 12,3).

【교회의 가르침】

경솔한 판단을 피하기 위해서는 누구나 이웃의 생각과 말과 행위를 가능한 대로 좋게 해석하도록 유의해야 할 것이다(가톨릭교회교리서, 2478).

【어록】

▶ 부질없이 헛된 생각에 머무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자. 이런 습관에 잡혀 있으면 머지않아 위험하고 악한 생각에 머물게 된다(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 하루 종일 좋은 생각이나 짧은 화살기도로 지낸다면, 열망을 얻기란 어렵지 않다(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 자기의 의견과 판단을 고집하는 자는 완덕의 길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깨달아야 한다(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 말다툼이나 모욕적 논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자기 생각이 옳다고 여겨져도 어느 정도 누르고 남의 의견에 양보할 필요가 있다(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 『신앙생활 보감』, 청주교구 복음화 연구소, 2013 -